

英語教育 活成化의 一方案

—Oral Production을 中心으로—

裴 基 武

How to Activate Receptive English

Bae Kimoo

目 次

- | | |
|---------------|---------|
| I. 序 言 | IV. 結 言 |
| II. 外國語教育理論 | 參考文獻 |
| III. 活成化의 一方案 | |

Abstract

It seems that the main aims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most countries are to develop skills necessary for communication.

The ability of most students of ours to communicate in English is at quite a low level after having devoted a large amount of time to learning English in their high school educa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discussed a way of promoting their ability to express intention, feelings and thoughts not in written English but in spoken English under uncontrolled condition.

I. 序 言

最近의 各國의 外國語教育의 主目標은 文字言語보다는 音聲言語를 優先 重視하는 communication에 必要한 技能의 養成에 있는 것 같다.

우리 學習者가 數年間 莫大한 時間과 努力을 傾注하여 外國語學習에 專念하여 大學에 進學하고 있으나 그들의 外國語 運用 能力은 微微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本稿에서는 英語教育의 目標을 自己의 意志, 感情, 思考等을 最大限으로 傳達 시킬 수 있는 能力

을 가지도록 우리 學習者를 指導하는데 必要한 教授內容, 教授法, 教授技術을 생각해 보았다.

II. 外國語 教育理論

Mackey¹⁾에 依하면 言語 教授法에 對한 最初의 關心은 中世紀의 Latin語 教授에서 始作된다고 한다. Rome 帝國 以前에는 Rome人들이 희랍語를 學習했고, Rome 帝國의 興隆과 더불어 Latin語는 他民族들에 依해 學習되기 始作하여 그후 Latin語는 Europe社會에서 知識人들 사이에서 共通語 (Lingua Franca)의 地位를 占하였다. 따라서 文法이 重視되기는 하였으나 산 言語로서 聖職者에게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는 技能을 確立시키기 위해 實用的, 總合的인 教授가 시행되고 口頭練習도 行하여 졌다. 이때의 教授法의 主要한 要素는 模倣과 暗記라고 하겠다.

그러나 外國語 習得이나 教授法이 理論的으로 言語學者들에 依해 科學的으로 解明되기 始作한 것은 Sweet 以後이다.

1. Phonetic Method

Sweet²⁾는 좋은 教授法이란 우선 包括的이고 折衷的 이라야 한다고 했다. 教授法은 言語科學—音聲學, 音聲表記, 言語의 文法構造, 言語學的인 諸問題에 基礎를 두어야 하고 그러한 知識을 利用하기 위하여서는 教授法은 恒常 記憶과 概念의 聯想等的 基礎가 되는 心理學의 方法에 依해 이끌어져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의 方法論的 特徵은 言語의 實際的 研究은 音聲學과 心理學에 基礎를 둔 approach에 依하므로써 論理的 研究에 못지 않게 科學的이라고 생각했고, 그 當時의 言語의 科學的 研究은 主로 言語의 音聲面의 研究에 重點을 두었으므로 音聲學을 中核으로한 言語研究의 原理에 충실하였으며, 言語의 研究은 spoken language에 基礎를 둘것을 強調하여 指導面에서도 初期의 段階에서는 spoken language를 優先시킨다는 것이었다.

2. New Method, Rational Method and Phonetic Method

위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불리어지는 Jespersen³⁾의 教授法의 基本的 特徵은 Sweet의 것과 本質的으로 다르지 않으나, 教授法은 單一人物의 理論에 支配되는 것이 아니고 當時의 最高의 言語學과 教育學의 理論의 總體라야 한다는 것을 그는 認定하고 있다.

그는 言語는 communication의 手段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取扱하여 意味있는 communication을 通해서 學習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다. 또 그는 心理學的 觀點에서 動機주기의 重要性을 力說하여 教師는 學習者의 興味를 喚起시키는 것이 重要하며 學習者에게 實際로 行하고 있는 學習作業이 價値 있는 것이라는 것을 實感시키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은 意味있는 communication으로서 學習되어야 한다는 基本 原理에서 實際的인 教授에 있어서 是 關聯性없는 말의 盲目的 暗記는 排斥된다. 또 文法의 機械的 drill 만으로서는 學習者는 規則을 機械的으로 使用할 수는 있지만 他的 場面에 轉移시키는 것은 배울 수는 없다고 指摘한다.

3. Oral Method

Palmer⁴⁾는 口頭로 하는 會話的 學習方法이 보다 좋은 結果를 나타낸다고 主張하여 口頭, 會話的,

1) William F Mackey, *Language Teaching Analysis*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Ltd. 1965) p. 141.

2) Henry Sweet, *The Principal Study of Languag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3

3) Otto Jespersen, *How to Teach a Foreign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04) p. 11

4) Harold E Palmer, *The Oral Method of Teaching Languages*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1921) pp. 1~13

自然的, 本能的 學習以外的 言語學習方法은 排斥한다.

그의 教授法의 原理는 1) 最初의 準備...Course初에 言語學習에 必要한 基礎의 能力을 養成한다. 即 듣는 힘을 培養하고 外國語音聲을 明瞭하게 發音하여 模倣의 伸長을 도모한다. 2) 習慣形成...言語學習은 習慣形成의 過程이며 意識的 分析없이 言語를 自動的으로 驅使할 수 있는 領域까지 到達해야 함을 意味한다. 3) 正確性 4) 配列 5) 具體性 6) 興味...內的(intrinsic), 外的(extrinsic)으로 나누어 興味를 생기게 하는 要因으로서 學習者의 當惑의 排除, 達成感, 競爭心, 教師와 學習者間의 바람직한 關係等을 들고 있다. 7) 發展의 順序...規則의 注入을 排斥하고 우선 듣고 正確하게 發音하며 文을 暗記하고 다음에 文을 만들어내는 練習을 말한다. 8) 複合的 approach...좋다고 생각되는 여러 方法으로 여러 方向에서 接近하여 새로운 要素를 받아 들인다는 折衷의인 態度이다.

그의 教授法의 重要한 特徵은 "Thinking in English"를 獎勵하는 것이다. 이것은 授業의 中心의 作業이되는 英問英答을 通해서 母國語를 介在 시키지 않고 自動的으로 發話가 생기는 것을 目標로 삼는 것으로, 말(spoken language)을 中心으로 하는 口頭作業을 重視, 自動的인 習慣形成을 目標로 삼는 그의 基本原理를 反映하고 있다.

4. Audio Lingual Habit Theory

이 理論에 큰 影響을 준 것은 Bloomfield이다. 그는 行動主義者로 學習의 精神主義的 解釋을 排斥하고 機械論的 approach를 支持한다. 即 言語能力은 知識의 問題가 아니라 練習의 問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行動主義的 學習原理에서 習慣形成이 重視되어 習慣形成過程을 通한 言語習得에 基礎를 둔 새로운 教授法이 開拓되었다.

이 理論의 方法論的 特徵은 Skinner의 學習모델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 言語行動은 他的 行動과 같이 刺戟(stimulus)과 反應(response)의 結合으로 構成되어 있어 知的인 過程이라기 보다는 機械的인 過程이라는 거다. 反應이 즉각 強化되는 一連의 S-R 場面을 通過하므로써 行動이 條件化된다. 文型練習과 模倣練習等은 바람직한 行動으로의 連續的 接近이라고 하는 Skinner의 原理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理論은 自動的인 反應의 發展을 重視하기 때문에 意味는 짓혀두고 練習에 依해 型을 自動的, 無意識的 反應의 飽和點까지 到達시키는 것이 優先된다.

Fries⁵⁾의 言語觀은 行動心理學과 構造主義 言語學에 基礎를 두고 있다. 그의 Oral Approach의 指導目標은 學習者로 하여금 口頭로 英語를 發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여기서 'approach'는 이 目標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모든 方法을 包含함을 意味한다. 그의 教授法의 原理를 들어 보면 1) 對立의 原理... 言語體系를 構造化된 型(patterns)으로 보는, 그의 言語構造의 基本的 認識에 基礎를 두는 概念으로 이 概念이 音聲과 構造의 練習方法을 支配한다. 2) 正確性의 原理... 限定된 말을 使用하여, 우선 音聲의 型이나 構造의 型에 關한 正確性을 發展시킴을 意味한다. 3) 習慣形成의 原理... Oral Approach의 目標은 言語를 使用하는 것이어서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習慣形成이 不可缺少條件이 되고 많은 練習을 通해서 習慣이 確立된다. 4) 自動的이고 無意識的인 使用의 原理... 口頭練習은 單純한 模倣과 反復이 아니고 우선 型을 模倣하고 다음에 對立을 利用한 練習을 한다. 이것을 通해 重點이 構造的인 選擇에서 發話全體의 意味에 轉移하여 適切한 項目과 構造를 自動的으로 또 한 無意識的으로 使用하는 領域에 到達한다는 것 等이다.

Lado⁶⁾도 Fries와 거의 같은 立場을 取하고 있다. 言語는 大部分 習慣에 基礎를 두고 機能하는

5) Charles C. Fries, *Lectures by CC. Fries and W.F. Twadell* (Tokyo: Kenkyusha, 1958) pp. 13~23

6) Robert Lado,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Inc. 1964) pp. 104~105

것으로, 無數한 文法規則, 發音, 말 등이 流暢한 speaker에 依해 普通의 速度로 使用된다는 것은 習慣에 依해서만 可能하다. 따라서 學習者가 必要로 하는 것은 習慣形成을 위한 練習이고 練習이 없으면 言語學習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主張이다.

5. Cognitive Code-Learning Theory

Chomsky⁷⁾는 言語는 行動이라는 생각에 基礎를 두고 있는 Audio Lingual Habit Theory를 否認하고, 母國語 話者가 가지는 無限한 可能性이 있는 會話의 型은 刺戟-反應의 學習에 基礎를 두어서는 說明이 될 수 없으며, 母國語 話者는 끊임없이 새로운 發話를 創造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以前에 經驗한 것에 對해서 同一한 反應을 反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한다.

그에 依하면 人間의 言語라는 認知領域에서 學習되는 것은 文法이고, 一次의 言語資料—→言語習得裝置—→文法에서 言語習得裝置의 內在인 特質과 構造를 決定하는 것이 그의 一般言語理論의 課題가 된다. 이 課題의 達成은 學習되는 文法 model로서의 變形生成文法 없이는 不可能하다. 따라서 外國語의 構造를 知的으로 理解하는 것이 重視되고 學習者가 言語의 構造에 對한 知的 統制力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言語를 意味 있는 場面에서 使用하게 되어 機能은 自動적으로 發展되는 것이라 한다.

Rivers⁸⁾는 外國語 教師가 學習者로 하여금 自由로히 새로운 말을 表出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Chomsky를 引用하여 「規則에 支配된 行動」(rule-governed behavior)의 特長을 들고 있다. 이런 行動을 特長하기 위해서는 特定한 場面に 알맞는 意味論的, 音聲學的 要素를 使用하여 말을 했을 때 理解되고 受容될 수 있는 文法에 맞는 無限한 數의 文을 만들어 낼 수 있는 規則의 體系를 外國語 學習者가 內面化(internalize)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單純히 規則을 주어서 그것을 使用하여 言語의 連續을 만들어 내도록 訓練 시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規則의 體系를 內面化시키는 것은 아니며 言語를 創造적으로 使用케 하는데까지는 여러 段階가 있다고 한다.

이들을 크게 skill-getting과 skill using의 두 段階로 나눌 수 있다. 그는 教室內에서는 communication에 必要한 skill-using의 活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skill-getting의 活動만이 이루어지며 이 活動은 skill-using의 活動에 直結되지 않음을 指摘하고, skill-getting의 段階에서 Pseudo-communication의 活動을 設定하고 있다. 이 活動은 이미 얻은 知識을 學習者 相互間 或은 教師와 學習者사이에서 練習하여 다음에 올 言語使用에 連結하는 것이다. 即 學習者의 積極인 參加로서 既習의 學習事項을 機會 있는 데로 展開하여 傳達에 必要한 言語技能을 伸長함을 目標로한다.

6. Communication Practice

Communication practice는 構造主義的 言語操作의 學習이 傳達能力의 養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點을 反省하여 學習初期부터 言語의 傳達機能의 役割을 重視하고 自發인 發話가 可能한 水準까지 學習者의 能力을 伸長하려는 教授技術 或은 그것을 겨냥한 教授·學習形態이다. 그러나 學習者에게 學習 開始와 同時에 自己表現을 要求해도 그것은 不可能하므로 自發의 發話能力에 連結되는 言語習慣을 여러 drill과 exercise에 依해 形成하고 그 習慣을 段階적으로 發展시켜 最終目標에 接近시킨다.

Communication practice의 具體인 方案이 考案되었는데 그 大部分은 situation approach를 重視한 question & answer의 形式을 取한다.⁹⁾

7) Noam Chomsky, "Linguistic Theory," Mead, Robert G., Jr. (ed) 1966, pp. 43~49

8) Wilga Rivers, "From Linguistic Competence to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 March 1973

9) 垣田 直己, "Communication Practice について", 英語教育(東京:大修館, 1973, 6月) pp. 19~21

英語教育 活成化의 一方案

Cole¹⁰⁾은 言語를 使用하는 行爲에 依해서만 言語를 使用할 수 있다는 假說에서 學習者를 group discussion에 參加시키므로써 communication에 自信을 붙이게 하고 意欲을 고취시키고 그 必要性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Palmer¹¹⁾는 教室에서의 活動은 처음부터 communication skill의 育成을 志向해야하며 文의 가장 重要한 要素는 形式이 아니라 意味라고 主張한다. 여기서 學習者에게 年令, 性別, 社會的인 身分과 發話에 對한 反應을 考慮시켜 自己의 發話가 社會的으로 受容될 수 있는가를 判斷시켜야 할 것을 強調한다. 또 communication practice는 tape recorder와 같은 機械로서는 不可能하고 반드시 人間 教師가 必要함을 指摘하고 있다.

Cosgrave¹²⁾는 pattern practice의 必要性도 認定하나 communication의 能力을 育成하기 위해서는 學習者의 日常生活과 經驗에 근거를 둔 表現을 situational approach에 依해 가르칠 것을 主張한다. 그리고 가장 効果的인 communication practice는 學習者가 알고 있는 人, 場所, 事物에 關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學習者의 年令, 個人的인 興味 또는 趣味, 學習狀況等을 考慮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以上 外國語 習得理論 및 外國語 教授法 理論을 概觀하였다. 어떤 理論이든 어떤 性質의 活動에 重點을 두느냐가 問題이지 結局은 communication의 能力을 培養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는 것은 共通된 見解인 것 같다.

Ⅲ. 活成化의 一方案

言語活動이란 듣고, 말하고, 읽고, 쓴다는 言語를 總合的으로 理解하거나 表現하는 活動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것은 言語의 實際活動에 이어진다. 이 中 本稿에서는 口頭表現에 對해 論하고저 하므로 듣고, 말하는 活動만을 다루고저 한다.

Listening Comprehension...「듣기」와 「쓰기」를 除外한 言語使用에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는 表裏一體의 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듣기」를 隨伴하지 않은 「말하기」의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있다고 하면 全的으로 一方的인 命令이거나 個人的인 獨白의 경우 程度일거다. 日常生活에서 「말하기」의 場面을 觀察해 본다면, 發話活動은 어떤 形態의 listening이 실마리가 되든가 或은 그것에 促進되어 일어난다. 本來 「말하기」란 自己만의 發話로 생각되기 쉬우나 speaking은 monologue와는 다르다. Speaking은 相對가 있음을 前提로 하는 dialogue가 基本이다. 어느 한쪽이 相對의 發話を 聽解하고 그것에 反應하면서 이쪽의 發話を 섞어서 나가는 것이 對話이고 會話이다. 만약 相對의 發話內容을 言語的으로 理解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이 時點에서 speech communication은 停止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外國語 學習에 있어서 「듣기」는 communication을 可能케 하는 첫 段階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數年間 傳統的인 Grammar Translation 方法으로 英語를 學習해 온 學習者들에게 listening ability를 培養하는 目的으로 어떤 教材를 使用하여 어떻게 學習을 시켜야 하는 問題가 생긴다. 西田 正¹³⁾의 말을 빌리면 communication practice를 包含한 傳達能力 養成의 教授技術에는 dialogue가 重要한 位置를 占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dialogue가 外國人 學習者

10) Peter Cole, "Some Techniques for Communication Practice," English Teaching Forum, Vol. X, No. 1. 1972

11) Adrian Palmer, "Teaching Communication" Language Learning, 1970, June

12) Desmond P Cosgrave, "From Pattern Practice to Communication," Part I & II, (Tokyo, Seido Language Institute, 1970) pp. 84~89

13) 西田 正 "Communication Practice と 傳達行爲", (大修館, 1976, 3月)p. 24

를 위해 特別히 만들어진 것은 안된다고 Brown¹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Just what material is used for listening exercises will of course vary with the age and sophistication of the students. The main thing is to avoid anything that was originally produced specially for foreign use.

이 말은 communication의 場面이 人爲的으로 作成된 situation이 아니라 自然스러운 situation이 라야 하며 authentic해야 한다는 뜻이겠다. Authentic하다는 것은 教材속의 發話자들이 이것이 外國語 學習者들의 學習用이라는 것을 意識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教材選擇에 있어서 學習用으로 作成된 것은 피하고, 眞實한 生活의 場에서 發話活動을 하는 것을 收錄해서 使用해야 함을 意味한다. 또 서로 다른 사람들에 依해서 말해지는 多樣性 있는 英語이며 多樣性 있는 場面들이야 함을 말한다. 以上은 錄音된 tape나 video tape를 使用할 때 收錄된 內容에 對해 言及한 것이다.

이들의 使用上의 利點은 反復 play가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教室에서의 學習時는 無制限 反復은 할 수 없다. 2, 3回 反復하고 學習者의 理解度를 알아 보기 위해 口頭로 大意를 發表케 하거나 制限된 時間內에 적어 보게 하는 方法이 있겠다. Dictation도 한 方法이기는 하나, 全體發話를 적는다는 것은 無理한 일이며 正字法, 聽覺識別, 音과 記號의 聯合等의 知識을 알아 보는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大意의 理解를 알아 보는데는 時間的인 희생이 너무 크다.

우리 學習者들의 「듣기」에 있어서의 難點을 指導해야 함을 指摘하고 싶다. 우선 우리 學習者들은 音聲變化에 익숙해 있지 않은 것 같다.¹⁵⁾ 이런 경우 「듣기」는 매우 困難해진다. 이 變化는 單獨의 音素가 異音으로 變化하는 것 뿐만 아니라 全혀 다른 音素로 되든가 或은 省略되기도 하고 周圍의 音素와 같이 變化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現象을 知識으로서 指導할 뿐만 아니라 實際로 귀로 듣게 해서 익혀줄 必要가 있다. 둘째로 우리 學習者들은 normal speed의 speech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點이다. 英語를 母國語로 使用하는 社會에서는 normal speed 이지만 우리 學習者들에게는 매우 빠르게 들린다는 問題가 있다. 速度가 빠르면 두가지 點에서 큰 影響을 준다. 하나는 「強勢가 없는 말(word)이 매우 弱하게 또한 빨리 發音되는 傾向이 있다는 點과 또 하나는 速度가 빨라질 수록 個個의 말(word)이 짧아지며 發話中 또는 發話사이의 休止(pause)가 짧아지거나 거의 없어지는 수도 있다는 點이다. 이런 現象으로 因해 방금 들은 것을 整理하거나 總合하는 思考를 할 時間이 없어져 speed에 따라갈 수 없게 되고 「듣기」는 困難해진다. 이런 現象들도 知識으로서 가르치는 同時에 authentic한 教材를 使用하여 反復하여 들려줌으로써 克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째로는 rhythm을 把握하는 問題가 있다. 發話속에는 意味上 重要語가 있다. 이 重要語는 相當한 情報量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別로 內容이 없는 말(word)은 다 들어도 重要語를 놓치면 그 發話를 듣지 못한 것이 된다. 英語의 rhythm은 強弱으로 되어있고 所謂 文強勢는 大体로 時間的으로 等間隔에 나타나는 傾向이 있다. 이 文強勢가 있는 音節은 重要的 情報를 傳達하는 中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強勢를 잘 捕捉하는 것이 發話의 理解의 關鍵이 된다. 即 英語의 rhythm을 타는 것이 重要語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英語의 rhythm을 못타는 것도 listening이 잘 안되는 한 原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듣기」의 指導上의 한 問題이므로 理論과 實際의 듣기의 訓練으로 克服해야 할 거다.

네째로 우리 學習者들이 中·高校에서 6年間 學習해온 方法으로 미루어 보아 文法能力은 어느 水準에 到達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實際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文法能力이 弱하면

14) Gillian Brown, *Listening to Spoken English* (London: Longman Group Ltd. 1977) p. 157

15) 拙稿,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14輯 1979年 3月 所載

發話를 理解하는데 있어 豫測力이 不足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tape를 使用한 錄音인 경우 發音의 方法, 錄音技術, 電氣의 雜音等의 理由로 個個의 말(word)이 理想的인 發音보다는 좀 一그러져 들리는 수가 있다. 이때 syntax의 知識이 있으면 그 말(word)의 音素가 무슨 理由때문에 좀 變形 됐으리라는 것을 想像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自己귀에 들어온 그대로의 音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 이 때 豫測能力이 있으면 意味內容을 文法力으로 判斷, 豫測하여 옳게 內容을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背景에 對한 知識이 不足하면 發話內容을 把握하기가 힘든다는 點을 들 수 있다. 母國語의 會話에 있어서도 話題가 自己와 친숙하지 않은 것일 경우 內容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다. 하물며 外國語의 경우에는 그 度가 더 심한 것은 當然하다. 逆으로 말하면 學習者가 친숙한 地名이나 人名等이 話題의 中心일 경우 理解가 容易해 지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겠다. 따라서 教材의 內容이 學習者의 身邊에 關係 있는 것을 學習初期에 使用하므로써 그리고 教材內容의 背景을 미리 說明해 줌으로써 「듣기」의 能力을 增進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다.

Oral Production...「말하기」를 意味하는 用語로서 發話, 發音, 音聲表現, 發表力, 表現力, 會話力等이 있으나, 「말하기」란 要件대 外國語를 音聲的으로 表出하는 일이고, 어떤 主題를 表現하므로써 發話者의 意志를 相對方에게 傳하는 일이다.¹⁶⁾

發話者가 自身의 意圖나 意志를 相對에게 傳하는 일은 이미 母國語의 言語的 背景이 있고 거기에서 外國語를 使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言語的 反應은 母國語의 경우처럼 單純하지 않다. 發話者는 그 外國語의 必要한 最少限度의 音體系(音素配列, stress, rhythm, intonation 等), 文構造, 慣用 表現等을 習得하고 그들을 能動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狀態까지 익히는 것이 條件이된다. 여기서 能動的이라 함은 外部의 統制가 없음을 意味한다. 發話者는 發話의 刺戟을 받고 거기에 應해서 必要한 記號를 골라서 그것을 音聲化하여 表出하므로써 傳達의 役割을 하게된다.

言語學習에는 習慣形成의 level과 傳達活動의 level이 있다고 한다.¹⁷⁾ 外國語 學習者가 訓練해야 할 外國語의 이 두 level은 다음과 같다. 첫째 closed system의 固定된 關係(매우 좁은 制限속에서 變化하는 關係)속에서 나타나는 言語要素를 使用하여서 行하여 지는 manipulation의 level과 둘째, 傳達될 message의 type, 그 發話가 생기는 場面, 말하는者와 듣는者, message가 傳達되는 強度等의 要因에 應해서 變化의 可能性이 無限이 있는 個人의 意味表現의 level이다. 教室에서의 外國語 學習活動은 이 두 level을 指導上의 目標로 삼아야 하겠다.

그래서 한 單位의 學習場面이 設定됐다고 하면 manipulation의 level에서는 그 場面に 適合한 言語材料를 抽出하여 正確性, 自動化의 觀點에서 學習者를 訓練시키고, 個人의 意味表現의 level에서는 學習者 相互間 或은 教師와 學習者間의 playacting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場面設定의 問題를 생각해 본다. 이 場面은 authentic한 것이 되어야 하겠다. Communication practice의 成敗를 決定하는 重要한 要素는 場面設定(或은 選擇)에 있다. 卽 communication practice의 指導目標에 알맞은 場面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

例를 들면 教師가 學習者의 實生活와 가까운 場面을 設定하여 學習者의 發話의 意味나 結果를 생각시켜 그 時間의 target sentence를 學習者가 反復 發話하도록 한다. 그리고 教師와 學習者, 學習者와 學習者間의 dialogue의 話題의 方向을 示唆하고 이時点까지 習得한 것을 總合的으로 運用하여 話題의 單純化를 막고 話題의 展開, 深化를 促進하는 內容展開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教師가 場面을 設定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겠으나, 學習者와 教師가 協議(negotiation)하여 設定하는 方法

16) 小川 芳男編, 英語教授法辭典(東京:三省堂, 1964) p. 546

17) Wilga Rivers, "Rules and Patterns, and Creativity in Language Learning," ETF, 1972, Nov-Dec. p. 49~56

도 있었다. 이 방법은 學習者가 參與意識을 갖게 됨으로서 興味를 가지고 自進해서 活動하게 되어 學習活動을 더욱 旺盛하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Manipulation의 level에서 學習을 促進시키는 事項(技術)을 指摘해 보면 첫째, 明快하게 말하는 技術을 指導해야 하겠다. 即 intelligibility의 問題다. 말하는 者는 相對에게 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發音, 發話의 方法을 익힐 必要가 있다. 이것의 基礎는 個個의 말(word)을 正確한 強勢로써 말할 수 있고, 더 進歩된 段階에서는 強勢語, 弱勢語를 넘어서 正確한 rhythm으로 文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fluency의 問題와 關聯된다. 이것이 되면 英美 各方言의 差에 神經을 쓸 必要없이 自己가 習得하고 싶은 하나의 型으로 自己의 音聲體系를 만들어 가면 된다. 둘째, 文을 만드는 技術이 必要하다. 이것은 oral production에서 中核이 되는 技術이다. 이것은 우리가 處해 있는 環境에서는 「읽기」와 「듣기」를 基礎로 해서 反復練習하므로써 우리 學習者가 할 수 있는 方法이다. 우선 들을 수 있게 되면 相對가 使用한 表現을 自然히 借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을 하는 것은 紙上에 作文하는 것과는 달리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線的으로 이어나가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어나가는 方法을 익힐 必要가 생긴다. 練習을 거듭하면 不定詞, 分詞, 動名詞, 關係詞 등이 接續詞와 더불어 便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英美人의 對話時의 文型使用에 對해 알 必要가 있다. 한 調査에 依하면¹⁸⁾ 單文 또는 單文—接續詞—單文의 型을 壓倒의 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學習者에게 單文構造의 表現方式를 될 수 있는 데로 使用하는 習慣을 길러줄 必要가 있겠다.

個人의 意味表現 level에서 對話의 技術問題가 있다. 이것은 빨리만 말하는 問題가 아니고 말하는 者와 듣는 者사이에 어색한 silence가 생기지 않도록 말을 계속하는 技術을 말한다. 相對의 發話에 對해서 그러한 silence가 생기지 않도록 무엇인가 말을 해서 신속히 反應할 것, well 或은 It seems 등을 使用하여 文을 만들 時間을 번다든가, 말을 바꾸어 하든가 하는 方法 등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 말하는 者와 듣는 者사이에 무리없는 交流이 이어진다. 또 順調롭게 말을 發展시키는 方法으로서 相對가 말한 文中의 內容語를 利用하여 文을 만들어 나가는 方法도 있겠다. 한 學習時間中에서 指導해야 할 target sentence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은 勿論이지만 말을 發展시켜 나간다는 觀點에서 target sentence에서 벗어나 自由로운 話題로 옮겨가는 것도 막아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練習은 英語의 創造(creativity)에 重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正確성을 要求하여 너무 嚴格하게 統制할 必要가 없다. Communication이 成立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許容성이 問題가 되어 學習者가 말 할려고 하는 勇氣를 꺾지 않도록 注意해야겠다.

數십名의 學習者를 收容하고 있는 教室에서의 學習活動이나 言語活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教師對 學習者間의 言語活動은 正常的인 言語使用(language use)이 될 수 없다고 Widdowson¹⁹⁾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We cannot say that the exchange between teacher and pupils represents a normal instance of language use, but only that it is a teaching device to enable the pupils to establish the significance of a certain structure and certain words in their minds and to provide them with practice by repetition.

그의 이와같은 主張을 全적으로 認定할 수는 없으나 教室內의 學習活動이나 言語活動이 全적으로 教師對 學習者間에 進行된다면 그것은 確實히 效果를 減少시킬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活動은 學習者對 學習者間에 重點을 두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大集團을 여러 小集團

18) 田邊洋二, “進人んだ 段階における 話し ことばの指導”, 英語教育, 1976, 8月 p. 18

19) H. G. Widdowson,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1978) p. 12

으로 分散할 必要가 있다.

言語는 communication의 手段이고 練習量을 增加시켜야 한다는 觀點에서 Kohn과 Vajda²⁰⁾는 小集團, 특히 2, 3人的 學習者 相互間의 教授·學習(Peer-mediated instruction)을 強調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 意義를 생각하면 言語學習은 統制된 練習에서 보는 바와 같은 受動的인 活動이어서는 안된다. 意味있는 文脈으로 言語를 많이 使用하도록 刺戟하고 動機를 誘發해야 한다. 小集團으로된 學習者 相互間의 學習狀況에서는 學習者는 大集團의 狀況에서 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더 眞實한 自己表現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는 2人 或은 3人的 小集團學習이야말로 自由롭고 開放的인 雰圍氣속에서 communicate하는 機會를 부여하는데 가장 効果的이고 効率的이라고 主張한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集團活動은 柔軟性이 있고 自由스러우며, 使用教材(言語材料)와 練習內容은 course의 目的에 一致해야 하며 學習時間의 거의 大部分은 集團活動으로 學習者 自身이 學習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集團構成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 50人以上을 收容하고 있으니 2人或은 3人的 小集團構成은 集團數가 너무 많아지고, 發話를 주저하는 우리 學習者들의 性向을 감안할 때 5,6人을 한 集團으로 하여 缺乏되기 쉬운 話題를 서로 補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여기서 language use의 area를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眞實한 communication이 되기 위해서 學習者는 自己의 꾸밈없는 氣分이나 생각을 陳述해야 할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初步段階에서는 自己의 身邊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陳述하므로써 쉽게 말의 실마리를 풀 수 있고 自身의 參與氣分이나 생각을 펼 수 있다고 본다. 우리 學習者들의 外國語 學習活動이나 言語活動은 教室內에 限定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實情이다. 與件이 이러할 때 우리는 language use의 area를 教室內에서 찾아볼 必要가 있다. 이점에 對해서 Widdowson²¹⁾은 教科課程에 있는 他科目을 그 對象으로 指摘하고 있다.

I sh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most likely areas are those of the other subjects on the school curriculum. ...But the school is also part of the child's real world that part where familiar experience is formalized and extended into new concepts. Subjects like history, geography, general science, art and so on draw upon the reality of the child's own experience and there seems no reason why a foreign language should not related to the outside world indirectly through them.

끝으로 英語教育의 活成化를 위한 教師의 役割에 對해 생각해 본다. 言語가 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라면 教師가 할 일은 學習의 場이 communication의 場이 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單調로워지기 쉬운 學習者와 學習者間의 dialogue를 도와주고, 話題의 方向, 어휘나 表現上의 도움도 주어야 한다.

또 學習者의 水準에 맞는 言語材料의 範圍(areas of material for language use)의 選擇, 學習者의 發話의 新鮮味, 創造性等을 칭찬해 주며 激勵과 刺戟을 주어야 한다. 또한 學習者가 言語를 使用하므로써 얻는 成功感을 맛보도록 自身感을 심어주어야 한다.

以上の 役割外에 教師自身의 會話力도 必須的인 條件이 된다. 學習者의 model이 되기 위해서 또 學習者에게 信賴感을 주기 위해 臨機應變的으로 自由로히 구사할 수 있는 會話力을 갖추어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學習或은 言語活動時 教師의 過度한 發話는 學習者를 壓倒하여 發話를 주저시키기

20) James J Kohn & Peter G Vajda, "Peer-mediated Instruction and Small-Group Interaction in ESL Classroom," TESOL Q, 1975, Dec.

21) Widdowson, ibid, p. 16

쉬우므로 必要한 最少限의 發話로 끝여야 할것이다. 말 보다는 오히려 無言의 動作으로서 教師의 要求가 무엇인가를 探究하도록 學習者의 好氣心を 일으켜 動機誘發을 시키는 것도 한 方法일 것이다.

IV. 結 言

最近의 言語習得은 單純히 習慣形成만의 問題가 아니라 精神의 創造的 活動에 크게 힘입고 있다는 說이 唱道되고 있다. 確實히 從來에는 言語習慣이라는 一面만에 힘을 쏟은 感이 없지 않다. 言語習得의 基礎에는 生得 能力에 依한 能動的인 精神活動이 있음을 보아 넘겨서는 안되겠다. 그러나 言語活動이 習慣에 힘입고 있는 點도 否認할 수 없는 뚜렷한 事實이다. 따라서 兩者는 匹敵 排斥될 것이 아니라 서로 相補되어야 할 것이다.

教室內에서의 言語活動은 時間的으로 制約되어 當然히 量的으로 制約을 받는다. 이런 輿件下에서 效果的인 言語活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言語材料가 authentic한 生생한 것이 되어야 하겠고, 言語가 人間社會에만 存在하는 人間對 人間의 活動이란 것을 감안 할때 小集團內的 個體가 協同하여 統制가 적은 狀況下에서 自由로써 自身の 感情이나 思考를 表現할 수 있도록 學習者를 誘導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學習活動에서 言語活動으로 指向되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Brown, Gillian, *Listening to Spoken English*(London: Longman Group Ltd. 1977)
- Chomsky, Noam, "Linguistic Theory", Mead, Robert G., Jr. (ed.). 1966
- Cole, Peter, "Some Techniques for Communication Practice," *English Teaching Forum*, Vol. X, No. 1, 1972
- Cosgrave, Desmond P, "From Pattern Practice to Communication, Part I & II", *Modern English Journal Jan.* (Tokyo: Seido Language Institute. 1970)
- Fries, Charles C, *Lectures by CC. Fries and W. F. Twadell*, (Tokyo: Kenkyusha. 1958)
- Jespersen, Otto, *How to Teach a Foreign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04)
- Kohn, James J and Peter G, Vajda, "Peer-mediated Instruction and Small-Group Interaction in ESL Classroom", *TESOL Q*, Dec. 1975
- Lado, Robert,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Graw. Hill, Inc. 1964)
- Mackey, William F, *Language Teaching Analysis*,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Ltd. 1965)
- Palmer, Adrian, "Teaching Communication", *Language Learning*, June 1970
- Palmer, Harold E, *The Oral Method of Teaching English Language*,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1921)
- Rivers, Wilga, "Rules and Patterns and Creativity in Language Learning," *ETF*, Croft, Kenneth (ed.) Nov-Dec., 1972
- _____, "From Linguistic Competence to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 March, 1973
- Sweet, Henry, *The Principal Study of Language: A Guide for Teachers and Learners*(London: J. M. Dent & Sons Ltd.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Widdowson, H. G.,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小川芳男編, *英語教育辭典*(東京:三省堂, 196)
- 垣田直己, "Communication Practiceについて", *英語教育*(東京:大修館, 1973, 6月)
- 西田 正, "Communication Practice と傳達行爲" *英語教育*(東京:大修館 1976, 3月)
- 婁基武, "Dictation에 나타난 海大生의 英語聽音上의 問題點"(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14輯, 1979, 3月)
- 田邊洋二, "進んだ"段階における 話しことば "の指導", *英語教育*(東京:大修館, 1976, 8月)